

# 민주노총 충청권 지역본부, "윤석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해야"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 ⓒ 승인 2023.01.27 12:54

**민주노총, 노동시민사회 "연대투쟁으로 무력화 분쇄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민주노총 충청권 3본부(세종충남, 대전, 충북)는 2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대해 규탄하고 중대재해 기업 최고책임자를 엄중처벌 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충청권 기자회견 (사진, 백승호)

기자회견단은 2022년 충청권 산재사망자 91명,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30건, 검찰송치 4건, 기소 0건이라며, 전체 229건의 중대산업 재해 중 34건 검찰 송치, 18건은 내사 종결했으며 34건의 송치 사건 중 11건 만을 검찰이 기소했지만 재판 결과는 없다고 밝히며 엄정한 법 집행은 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제자리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만 계속된다고 윤석열정부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노동자 실질 참여 보장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부활로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되는 정책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 맵을 발표 해서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고용노동청 면담 (사진, 백승호)

아울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사, 감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고, 사업주 처벌 및 규제 완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을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를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분쇄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중대재해 책임자가 처벌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가 전면보장되는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과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충청권 기자회견 (사진, 백승호)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충청권 기자회견 (사진, 백승호)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충청권 기자회견 (사진, 백승호)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충청권 기자회견 (사진, 백승호)

謹弔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합니다.

2022년 충청지역

중대재해 90건  
사망자수 101명

삼표 채석장 매몰 사고 (22.01.27)  
3명 사망

CCTV 설치 안내

안녕하세요 충청지역에서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재난을 위해 CCTV를 사설·공공 시설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 CCTV 설치대상은 주민 100명 이상 또는  
2. 100㎡ 이상인 시설  
3.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 설치비용은 100% 지방비 부담  
5. 문의사항: 041-940-1212

충청지역고용노동청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민주노총

단결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충청권 기자회견 (사진, 백승호)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충청권 기자회견 (사진, 백승호)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nanda6636@hanmail.net](mailto:nanda6636@hanmail.net)

---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